

Merck, 제약산업 세미나 6월11일 개최

한국Merck는 6월11일 오전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국내 주요 제약기업의 품질관리 및 생산 분야의 연구원 및 관련자들을 초청해 Merck 고객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제약산업의 품질관리 및 생산 분야의 실무자들에게 제약산업의 외부 환경과 강화되는 국제 규격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향후 대응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Merck의 PLS (Performance and Life Science Chemicals) 사업부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신 GMP 가이드라인에 따른 품질경영의 국제 현황, 제약산업 품질관리와 생산에 필요한 등급별 제품, 표준품·소급성·인증과 관련된 국제 규격과 가이드라인, 제약산업에서 유기용매 사용에 요구되는 국제규격 및 미생물관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약 원료, 새로운 규격에 맞는 Polyvinylalcohol 및 응용범위, 위생 관리를 위한 솔루션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Merck의 PLS (Performance and Life Science Chemicals) 사업부 총 책임자인 이동재 전무는 “고객들이 기술적인 문제나 프로세스에 대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산업의 분야별 글로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Merck 고객 세미나는 6월 4-5일 인디아 뭄바이에서 먼저 개최된 후 서울에서 진행된다.

<화학저널 2008/06/03>